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
		배포일자	2023년 3월 19일(일) 총 3매	
담당 부서	환경안전과	담당자	• 환경평가생태팀장 안중석 ☎440-3531 • 담당자 이원오 ☎440-3534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겨울 나고 다시 돌아온 저어새 환영잔치 열려
 - 18일, 남동유수지 내 저어새 생태학습관서 진행 -
 - NGO네트워크·자원봉사자·일반 시민 등 참여 ... 저어새에 대한 관심 제고 -

인천시가 저어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8일 남동유수지 내 저어새 생태학습관에서 저어새 환영잔치를 진행했다.

저어새는 전세계 약 6천 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(I 급)이자 천연기념물이다. 대만, 홍콩 등에서 겨울을 나고 매년 3월 도심지 내 유일한 번식지인 ‘남동유수지 저어새섬’으로 돌아와 3~8월 번식 후 11월에 인천을 떠난다.

지난 2월 26일에는 국립생태원, 저어새NGO네트워크, 저어새생태학습관,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남동유수지 내 저어새섬에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제공받은 나뭇가지 등을 통해 저어새 큰섬과 작은섬에 둥지 조성활동을 진행했다.

시는 18일 저어새 환영잔치에 저어새 NGO네트워크, 자원봉사자, 일반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‘저어새섬 주변 줍깅’을 시작으

로 ‘환경을 위한 룽룽 현수막’, ‘저어새 걸개 그림’, ‘저어새 노래 부르기’, ‘저어새 생태놀이’, ‘남동유수지 내 조류 탐조’ 등 체험활동과 탐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.

이용수 시 환경안전과장 “남동유수지를 찾아오는 저어새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, 앞으로 저어새의 번식을 기념하는 생일잔치, 사진전, 환송잔치 등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.” 고 밝혔다.

한편, 지난 해 저어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남동유수지(번식지)에 500마리의 저어새가 찾아왔고, 알을 낳아 300여 마리의 새끼 저어새가 부화됐으며, 11월에 대만, 홍콩 등 서식지로 220여 마리가 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사진> 저어새 환영잔치 사진





저어새야, 돌아와줘서 고마워!



2023 저어새 환영잔치

활동 내용

- 09:00~09:20 접수
- 09:20~10:00 저어 마을 줄길(환경정화)
- 10:00~11:40 알리자! 남동유수지는 소중한!
저어새 할아버지와 숯대 정비
환경을 위한 뽕뽕 현수막
저어새 걸개 그림
남동유수지 새 탐조
사진 속 주인공을 찾아라
저어새 생태놀이
새들을 위한 조류충돌 방지 활동 2
- 11:40~12:00 저어새 노래 부르기

2023. 3. 18(토) 09:00~12:00
남동유수지 저어새 생태학습관 앞뜰

참가 신청 : 구글링크 또는 QR을 통한 참가 신청
<https://forms.gle/vMbDoLXpEUUVYyJw6>



참가자 준비물 : 따뜻한 옷차림, 따뜻한 물, 개인용 돗자리, 장갑
선택: 뽕뽕 현수막에 사용될 봄느낌 자투리천
(버려지는 천이나 옷을 세로 7cm로 길게 잘라
준비해주세요. 분홍, 연두, 황토색 등)



저어새NGO네트워크 참여단체 : 강화도시민연대, 가톨릭환경연대, 약손을가진사람들, 인천녹색연합, 인천환경운동연합,
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,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, 저어새섬사람들, 저어새와 친구들

2023 저어새 환영잔치